

코로나 장기화에 노인 일자리 ‘취청’

광주시 감염 확산 추이 따라 올해에만 3차례 중단 어려운 형편에 월 27만원 활동비 끊겨 ‘생계 절벽’ ‘근로시간 약정’ 선지급도 건강 등 이유로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이 중단·재개를 반복하며 사업 기간마저 휘청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인 저소득 고령층이 소득 창출 기회를 잃고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노인 2만5468명이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중단됐다.

사업은 1차 감염 유행이 시작된 지

난 3월 첫 중단을 맞았다. 4월부터는 세 달간 사업이 정상화됐으나, 2차 유행이 번지면서 7월 또다시 전면 중단됐다.

이후 재개 수순이던 사업은 ‘3차 유행’으로 지역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22일 이후 또다시 잠정 연기됐다.

반년 넘게 사업이 빠걱대면서, 참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가족이나 어려운 형편에 사업 참여를 통해 받는 월 27만 원의 활동

비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3년째 청소 업무를 해온 최모(73·여)씨는 한 달을 노령 연금 24만 원으로 버티고 있다. 지난달 딸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이후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났다.

최씨는 “매달 나가는 약값과 생활비만 해도 부담이 크다. 명절 때 손주 용돈, 반찬거리 살 돈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입까지 끊겨 막막하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던 이모(76)씨는 “돈도 벌고 사회 생활을 하며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되찾았을 수 있었다.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도 불투명해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 노인의 생계비 보전을 위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앞서 지난 3월 사업 첫 중단 당시

광주시는 전체의 82.5%를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 참가자에게 올해 내 정해진 근무 시간을 채운다는 조건 하에 4월 활동비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참가자 연령·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근무 시간을 추가 약정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추가 선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또다시 선지급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인 참가자들이 3개월여 남은 올해 안에 추가로 60시간을 노동해야 한다”며 “감염병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사업 참가 노인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이용섭 광주시장, 전공노광주시지부단체교섭상건례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공노광주시지부와 단체교섭 상건례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국민참여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오는 10월 5일까지 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접수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아이디어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운영’, ‘지역경제 회복력 확

보’, ‘참여와 확대’, ‘주민 체감 일하는 방식 혁신’ 4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로 나눠 진행된다.

‘사회적 가치 실현기관 운영’ 분야 주요 공모 내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서민·약자배려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디어, 모범거래모델 활성화 방안, 채용 시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 사례 평가문항 아이디어 등이며, ‘지역경제 회복력 확보’ 분야는 신규일자리 창출 방안, 지역 혁신성장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리빙랩 과제 등이다.

‘참여와 확대’ 분야는 주민경영참여 내실화 방안, 공사 보유 공공자원 개방·공유 확대 방안 등이며, ‘주민 체감 일하는 방식 혁신’분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방안, 위라벨 문화정착 실행프로그램 발굴 등이다.

공사는 당선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향후 공사 업무 및 혁신과제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내의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혁신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061-280-0413)에게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 “순천대 의대 신설돼야”

순천시의회

(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원은

최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

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

는 지역으로, 전남 동부권은 상급병원

으로의 이송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

되는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공단

이 밀집된 곳으로 각종 산업재해에 상

시로 노출되어 있고, 의료취약 계층이

많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의료서비스

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의

존도가 높고, 의사 1명당 병상수가 전

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등 타 지역과

의 의료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전남 동

부권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 때마다 ‘순천

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 정당이 이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

료 확대 등에 관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의 가

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구 ‘예술의 거리’ 활성화 위해 대대적 도로정비

광주 동구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도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동부경찰서~중앙로 예술의 거리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 중앙 차도부 사고식 이음부 보수 ▲도로 양측 보도부 점토블록 화강판석으로 교체 ▲각종 보행환경 지장물 정비 등 도로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술의 거리는 종장로, 금남로와 인접해 있어 광주의 대표적 문화예술 거리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잦은 파손과 보수를 거치면서 근원적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예술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끝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서구,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가 2020년 하반기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seogu.gwangju.kr/365edu)에서 가능하며, 총 20개 프로그램 4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나를 찾는 인문학, 심리학을 통한 삶의 이해, 남도 시(詩)문학 산책 등 6개 강좌 △우리를 알아가는 시민학당, 세계 도시공동체와 시민문화 등 3개 강좌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예술학당, 플랜테리어 오일드로잉 등 3개 강좌 △내일을 준비하는 다모작학당, 랜선으로 하는 그림책 놀이, 산아초 이야기 등 4개 강좌 △마을 보물을 찾는 서구학당, VR(가상현실)로 떠나는 마을여행,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등 4개 강좌로 구성된다.

남구,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지도·점검

광주 남구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관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 보관실 및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 청결 및 냉동·냉장시설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여부이다. 또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무신고 소분 여부와 성수식품 제조와 가공, 조리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 음식기 등 청결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북구, 2021년 생활임금 10520원으로 확정

광주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북구는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05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0353원 보다 1.6%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으로 광주시 생활임금과 같다.

이번 생활임금은 매년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53명에게 적용되며 일 8시간·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 219만 8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산구, 수해 풍영정천·황룡강 산책로 등 응급복구

광주 광산구가 지난달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풍영정천 도촌교~윤남교 구간, 황룡강 서봉지구와 구간의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의 응급복구를 마쳤다.

도심 강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시민들의 야외 운동·힐링 장소로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광산구의 이번 응급복구는 수해를 입은 강변을 조속히 복구해 시민들의 일상에 송통을 띄워주기 위해 마련된 조치.

광산구는 두 곳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제방과 고수부지 등에 방치된 하천 쓰레기와 고사목 등을 수거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임행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양도소득세

■ 법인설립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안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월평균 18만원 혜택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서울시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